

타고르 심취한 소녀 팔순에 박물관 열어

김양식 원장(한·일문화연구원) 인도박물관 개관

“평생의 열원이었어요. 인도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소녀가 10살 때 오빠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 ‘초승달’을 읽고 시를 쓰며 막연하게 인도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5년 아시아시인대회에 참가해 인도를 갔다가 ‘바로 이곳이구나!’ 생각하고 40여년간 인도를 오가며 모은 수집품으로 박물관을 열었다.

한(韓)·인(印)문화연구원 김양식 원장(80·사진)이 7월 2일 서울 서초동에 ‘인도박물관’을 개관했다.

40여년간 인도를 방문하며 한두 점씩 수집해온 김 원장은 약 330㎡(100평) 공간에 조각, 공예, 회화, 현대미술품 등 1000여 점을 순차적으로 전시한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양식 원장은 1969년(월간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그는 인도 문화와 예술에 심취해 인도를 공부하고 방문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들어가 ‘R. 타고르작품에 나타난 우파니샤드 사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한일문화연구원을 창설한 그는 <기탄잘리> <초승달> 등 타고르의 저서를 포함해 다수의 인도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2002년 인도와 한국의 문화·예술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받아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빠드마 수리상’을 받았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문화훈장과 같은 상이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R. 타고르의 시편을 통해 인도를 동경해오면서 인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인도의 사상이며 종교, 철학을 알게 된 김 원장은 불교·힌두교가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했다.

“30년 전부터 매일 오전 4~5시에 기상해 기본적인 요가·명상 수행을 합니다. <반야심경> 사경도 하구요.”

김 원장은 여성재가불자 108인이기도 하다. 집안은 독실한 가톨릭이던 스승으로 불자라고 생각한다.

인도박물관 상설전시실은 종교, 공예, 생활문화를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삼지창과 뱀, 염주, 정병을 들고 있는 시바의 배우자이자 가네샤의 어머니인 빠르바티 상



① 시바신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양식 원장 ② 인도박물관 상설전시실 내부 모습 ③ 빠르바티 상(11세기) ④ 사방불탑(10세기)

(11세기), 날씬한 팔다리와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과장되게 비틀고 있는 여인상(11세기), 사방불탑(10세기) 등 주요유물부터 각 지방의 텍스타일과 각종 민화, 인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을 볼 수 있다.

기획전시실은 인도 악기 전시 공간이다. 악기는 ‘땀뿌리’ 등 인도 전

통악기를 종류별로 거의 모두 소장하고 있어 인도 전통악기에 대해 알 수 있다.

매달 둘째·셋째 수요일 저녁에는 기획전시실에서 인도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도 민화 그려보기 등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수집품들이 제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인도문화를 공유하고 싶어요.”

한국 고전 춤을 시로 쓰고 인도 에세이 집을 발간할 계획인 김 원장은 “불자들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585-2185 이나은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⑧ 덕수궁 휘트니뮤지엄 전

위홀의 ‘녹색 코카콜라’는 만민 평등

9월 25일 까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것이 미국미술이다, 휘트니미술관전’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한 미국대사,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주한 체코대사 등 서울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럽다. 불교계 미술 전시회에서 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사회인사들의 행보에 서운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부질없다. 열렬한 환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휘트니뮤지엄은 ‘미국의 미술과 작가들을 지원’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개관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독특하다. 철도왕 밴더빌트의 손녀 휘트니 밴더빌트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 작가들의 미술품을 메트로폴리탄뮤



앤디 위홀, 녹색 코카콜라 병(1962)

국불교 미술이다’라는 전시를 할 날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전시회는 20세기 중반 미국 미술의 화두였던 팝아트가 눈길을 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팝아트 작가로는 앤디 워홀과 2008년 ‘행복한 눈물’ 사건으로 유명해진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이들은 코카콜라, 만화, 대중문화, 패스트푸드 등 미국대중소비문화를 미술작품에 담고자 했다.

특히, 워홀은 코카콜라, 캠벨 스프랜, 마돈나 등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이라는 전통 예술의 공식을 깨고 누구나 같은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는 대중소비문화를 표상했다.

워홀은 112개의 녹색 코카콜라 병을 문화작업으로 찍어낸 작품을 두고 “모든 콜라는 다 똑같다. 돈이 있다고 더 맛있는 콜라를 사 먹을 수 없다. 대통령이 마시는 콜라나 길거리 걸인이 마시는 콜라나 엘리자베스스테일러가 마시는 콜라나 다 똑같다”고 말했다.

워홀은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인 콜라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콜라’를 찾아냈다. 평등한 콜라는 평등한 시민을 나타낸다. 만인 앞에 평등한 콜라. 소비의 평등. 이것이 우리가 열광한 미국 미술의 가치다.

재미있는 사실은 평등한 콜라가 보여준 가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하신 부처님의 뜻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재산이 많다고 더 맛있는 콜라 먹을 수 없어 대중문화에서 찾은 평등

지업에 기증하려다 거절당하자 설립했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은 전통성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유럽의 미술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해왔다. 이에 반대한 휘트니 재단은 자국의 예술가를 지원했고 이 같은 지원은 국제미술의 무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본인 소장 미술품을 공공 미술관에 기증 하려고 하고, 자국의 예술 발전을 위해 기꺼이 돈을 투자하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미국 예술은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독립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의 문화의 식민지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국의 문화의 우월함과 정체성을 증명 하려고 애썼다.

우리의 근현대도 오랫동안 일본·서양 문화의 식민지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불교미술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하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것이 한

불교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세요

7월 29일까지 조계종 문화부 접수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는 불교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 불교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후원한다.

참가자들은 문화부에서 개발한 2011신작찬불가 합창곡을 지정곡으로 11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합창경연을 벌인다.

참가자격은 20~60명 성인으로 구성된 사찰 및 불교단체 합창단으로 합창단원은 지속적으로 활동한 신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문화부에서 개발한 2011신작찬불가에서 반드시 1곡

을 선곡해 참가하고 나머지 1곡은 2010신작찬불가 또는 기존 찬불가에서 선곡해 참여해야 한다.

참가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와 전 국 불 교 합 창 단 연 합 회 (cafe.daum.net/lotussound)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7월 29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또는 이메일 (yungchang@buddhism.or.kr) 및 팩스(02-722-2606)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770

한편 문화부는 7월 5~6일 ‘2011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 및 총회’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합창단 임원들이 지역별 합창단 활동을 공유하고 불교 음악 강의를 들었다. 이나은 기자

‘자비의 길’ 다큐멘터리 발간

주한인도대사관은 다큐멘터리 DVD ‘자비의 길(The Path of Compassion)’을 발간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고대 불교 유적지를 묘사하며 고대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통해 석가모니의 일화와 불교 발전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룸비니, 보드 가야, 사르나쓰, 쿠쉬나गर 등 세계 4대 불교 순례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의 출생지를 비롯해 깨달음을 얻은 곳, 첫 번째 강론을 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 금욕생활을 한 곳까지 석가모니 삶 전반의 생생한 순례의 길을 소개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불교의 율법인 테라바다(Theravada)와 마하야나 바즈라야나(Mahayana Vajrayana)의 전통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시한다. 이나은 기자



다큐멘터리 ‘자비의 길’의 한 장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베노이 K 벨(Benoy K Behl)은 저명한 예술사학자이면서 사진작가이며, 동시에 불교 권위자이다.

아시아 예술과 문화 유산을 기록하는데 있어 선구자적인 업적을 세운 그는 세계의 여러 대학과 박물관, 불교사원에서 초청 강연을 했으며 유적에 관한 3만4000점 이상의 사진과 100편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02)798-4257 이나은 기자



간다라 문화예술協 31일까지 사진전

간다라 문화예술협회(한국대표 윤덕)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전시회를 연다.

‘간다라의 영혼,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이란 주제로 7월 22~31일 조계사내 나무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파키스탄의 불교 유적지와 고대 순례승들이 파키스탄에 속한 실크로드상에 남긴 일각화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나은 기자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지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드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0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1,690,000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짜익티오	7일 1,6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가이드, 기사 팀 \$50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1,140,000원 8월 16,19,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8월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699,000원 부터 -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749,000원 부터 -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649,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 02)365-7747